

부산시, 경부선 철도·가야차량기지·부전역 지하화 추진

구포~부산진역 16.5km 시설효율화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철도부지 활용·도시재생 계획수립 내년 6월까지 완료

부산시가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의 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1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오거돈 시장 주재로 관련 전문가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2월 사상구 대호PNC 폐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지역 기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부선 철도지하화가 포함된 '부산 대개조 비전'을 선포한 지 1년만이다.

이번 용역의 범위는 경부선 구포~사상~부산진역 구간(16.5km), 가야차량기지 및 부전역 일원이다. 연구용역 대상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방안 제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및 주변 지역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핵심사업인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를 위한 이번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책임 수행,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에서 전문가,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론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1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오거돈 시장 주재로 관련 전문가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사업이 지난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범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면 2012 여수엑스포나 2018 평창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부고속선만으로는 특별 수송량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건설한 지 110년이 경과된 기존 경부선 도심철도의 선형개선과 속도향상을 통해 전국에서 부산으로의 이동시간 단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사업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지원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추진 전략을 마련, 대한민국 도시 대개조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kimsd727@iusm.co.kr

● 대학가 소식

신라대 간호학과, 간호사 국가시험 전원합격

졸업 예정자 57명

신라대학교(총장 박태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신라대는 지난달 22일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시행된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간호학과 졸업 예정자 57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라대 간호학과는 2005년 개설인가를 받은 이후 지난 14년 동안 교육과정 개발, 우수 교수진과 교육시설의 확보, 보건의료기관 실습체계구축, 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가집단과의 협력 등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매진해 왔

다.

신라대 간호학과는 2014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5년 인증에 이어, 2회 연속으로 2019년에도 간호교육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2014년 중앙일보의 전국 간호대학평가 '상급' 획득과 2020년 현재까지 다년간의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률 및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신라대 김주성 간호학과장은 "열심히 노력해 전원 합격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간호교육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한 간호 전문가 양성에 한층 더 힘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양산시, 체납 수도요금 일제정리 체납액 10만원·3회이상 체납자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정희)는 오는 4월까지 수도요금 체납일소를 위해 3개월간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총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건수가 3회 이상인 장기 체납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납부촉촉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을 통한 수도요금 납부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양산 / 박현준 기자



대선주조-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통사고 예방 홍보 업무협약

부산의 향토기업 대선주조(대표 조우현)는 최근 부산 동래구 사직동 대선주조 본사에서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활동을 추진, 대선주조 주력 제품 대선소주에 '정지선! 교통안전의 생명선' 문구 보조라벨을 부착하는 등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통문화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양산시, 동면 5개 오지마을 6월부터 지방상수도 공급

2021년까지 총사업비 53억 투입

양산시는 동면지역 마을상수도 사용 지역 내 오지마을에 오는 6월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8년 6월 동면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를 착공, 현재 법기리와 개곡마을 구간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면지역 5개 마을(남락, 영천, 개곡, 본법, 창기마을)은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으로, 그동안 지하수 및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면서 갈수기나 가뭄 등에 취약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동면지역 5개 마을 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21년까지 총사업비 53억원(국비16억, 도비21억, 시비16억)을 투입해 상수관로(L=18.7km, D15~150mm) 매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발주된 법기와 개곡마을 구간에 이어 남락과 영천마을 구간도 현재 발주돼 2021년에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기 수도과장은 "동면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겪고 있던 동면지역 5개마을(500세대 1,038명)에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통한 양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산 / 박현준 기자



2022년 2월까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연속 선정된 부산대 재학 유학생.

부산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연속 선정

향후 2년간 교육부 사업 선정 우대 유학생 비자 발급 간소화 인센티브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오는 2022년 2월까지 인증대학으로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대는 올해 인증대학 선정으로 오는 3월부터 2년간 인증을 연속 획득함에 따라 향후 정부초청장학생(GKS) 등 교육부 사업 선정에서 우대를 받고, 유학생들의 사증(비자) 발급 시 서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들의 질 관리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다.

부산대 조운호 대외교류본부장은 "질 높은 교육,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부산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강화

부산병무청이 어려운 여건의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부산지방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선상에서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과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에 소집돼 3년간 승선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로서 전국에 3,100여 명이 복무 중이다.

부산병무청은 전국 승선근무예비역 약 82%인 2,600여 명의 복무인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과 언론 등의 승선근무예비역 권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 집중적인 추진에 나선다.

부산병무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승선 전 '권익보호 안내문 배부' 및 관리자급 선원 권익보호 관리교육 시 종합평가가점 부여 △장기미승선자 및 복무부실 전수조사 연2회 정례화 △하선 후 3개월 이상 미승선 시 행정처분 △부산병무청 내 권익보호 상담관 운영 △장기 미승선자 추출 프로그램 개발 △

권익보호 관련 제도개선안 발굴 건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해운업체 등의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사유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추가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부산병무청 김종철 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인권, 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이번 권익보호 활동 강화를 계기로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들이 안전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 강화 등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